

만화, 우리에게 어린시절 희망을 주었던 매개체였다. 그러나 시간이 흐른 지금 옛 영광은 사라지고 우리의 손엔 일본만화책만이 있을 뿐이다. 왜 한국만화가 이렇게 되었는가? 이에 우리신문은 만화평론가 박인하의 글을 실어 이해를 돕는다. (편집자)

박인하
(만화평론가)

우리나라의 만화를 거시적으로 바라보면 허공에 부유하는 몇몇 거품들이 눈에 거슬린다. 모인 사람은 별로 없는데 뛰어난 카메라 기술로 엄청난 군중이 운집해 있는 것처럼 시청자들을 착각하게 하는 TV 뉴스의 기술이랄까. 사실 만화를 많이 이야기하지만 실상 꾸준한 만화 독자층은 그리 많지 못하다. 단적인 근거는 우리나라에 창궐하고 있는 해적판을 보면 명백해진다. 대만이나 태국 등 아시아 다른 나라의 경우 일본은 해적판 시장을 접수하기 위해 각 출판사에서 교섭 담당자를 보내 라이선스 출판을 권유하며 적극적인 법적 대응으로 해적판이 근절되었다.

빈약한 만화시장

그런데도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해적판이 무수히 창궐하고 있다. 일본의 출판사에서는 한 일간의 독특한 민족감정과 그다지 크지 않은 시장이라는 이유로 라이선스 계약을 한 국내 출판사에게만 단속을 위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 출판사 입장에서 보았을 때 해적판을 단속하고 책을 팔아서 챙기는 로얄티나 그에 따르는 제반비용을 계산했을 때 그리 큰 이익이 되지 못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다른 통계수치를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만화시장이 그리 크지 못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일본의 주간지 빅 5를 계산해보면 약 2천만부 가량 판매부

수가 나온다. 물론 일본의 수치는 우리나라 수치와 비교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 인구의 1/10에 불과한 대만의 경우 10만부를 육박하는 부수를 판매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주간만화잡지는 계속되는 불황으로 10만부 이하로 팔리고 있는 실정이다. 시장구조가 열악할수록 상업적인 전략만을 염두에 둔 작품들이 쏟아져 나온다. 무엇보다 우리나라 만화출판사들이 한국만화에 투자하기 보다는 흥행에 있어 안전한 일본만화의 발행처로 전략할 위험도 있다. 97년들어 서울문화사와 대원출판사, 세주문화사 등 만화잡지와 단행본을 출판하는 출판사에서 전년도에 비해 엄청난 증가한 일본만화를 찍어내고 있다.

독자없는 성인만화

시장구조가 열악한 이유 중의 하나이자 작품성에 근거한 다양한 만화가 나오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나라에 성인만화 독자층이 없다는 점이다. '성인만화'라는 개념은 일본의 만화평론가 오시로 오시다케가 자신의 저서 '만화의 문화기호론'에서 밝힌 개념으로 그는 만화 독자의 세대구분을 아동만화, 청년만화, 성인만화로 나누었다. 청년만화와 성인만화란 아동만화를 보고 자란 독자들이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청소년과 성인을 독자층으로 하는 작품을 말한다. 일본만화의 장점 중 하나가 바로 이 점이다. 데즈카 오사무 류의 스트리 만화가 주류를 이루던 시절 그에 대한 반발로 나오기

□우리만화 현실진단

한국만화 재도약 날개 펼쳐라



▲만화 'Beast'는 요즘 청소년과 대학생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다양한 독자층 위해 새로운 도전 필요

시작한 시라토 산페이 등의 극화는 바로 청년층과 성인층을 타겟으로 한 작품이다. 그 이후 일본만화는 전 계층을 포괄할 수 있는 풍부한 작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청년만화와 성인만화가 풍부하지 못하다. 고등학생 대학생 그리고 성인을 이어주는 광범위한 작품들이 존재하지 못하다는 사실이다. 여기에는 독자가 없는 것이 문제인가

작품이 없는 것이 문제인가라는 கே세묵은 논쟁이 개입할 소지가 있지만 모든 탓을 독자에게 돌리는 것은 작가와 출판사의 임무방기다. 적어도 많은 수의 성인독자들이 일본 해적판 만화에 탐닉하고 있고, 그들을 겨냥해 출판사에서 일본 라이선스를 무수히 찍어내고 있다는 사실은 불만만 작품이 없다는 독자의 향연을 정당화시켜준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은 다시 구조의 왜곡에서 비롯된 우리

나라 만화의 현실을 되짚어 보게 한다. 80년대 이전세, 허영만, 박봉성, 고형석 등이 걸친 대본소 만화 붐후 이후 우리 만화는 왜곡된 성장상을 거듭했다. '만화광장'의 선구적 실험이 실패로 돌아간 이후 인기 위주의 대본소 작품 양산체제는 만화의 질을 급격히 저하시켰고 80년대 진지한 작품을 발표하던 작가들은 적극적인 작품활동을 멈추고 학습만화에 눈을 돌렸다. 결국 다양한 매체

에서 풍부한 작가들에 의해 이끌어 나가야 되는 만화시장이 대본소의 양적 성장으로 자리 매김함으로써 성인독자층을 흡수하지 못하고 90년대 소년만화 중심의 급격한 시장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드래곤볼'의 상륙으로 시작된 '소년만화'를 중심으로 재편된 잡지 시장은 대본소와 함께 만화시장을 양극화시켰고 대본소에서 이탈한 성인독자층은 소년만화 중심의 잡지로 흡수되지 못하고 부유한채 만화와 이별하거나 해방판을 새로운 대안으로 맞이했다.

이것이 우리만화의 현실이다. 성인독자가 볼 만화가 없다는 항변이 정당성을 얻는 이유이기도하다. 여하튼 90년대 이후 여러모로 새롭게 변화하기 시작한 만화시장의 재편기에 소년만화를 보며 성장한 독자층을 어떻게 끌어들이는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안타깝게도 지금의 대학생들에게는 80년대 대학생들이 열광하며 보았던 '공포의 외인구단'도 '오! 한강'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만화 활성화 대책

만화세대인 이들을 우리만화의 독자층으로 흡수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어야한다. 첫번째, 고전의 발굴이다. 만화의 고전이라고 하면 비웃을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60년대 이후 시대를 풍미했던 작품들이 존재한다. 글에서만 보았던 산호, 방영진, 고우영, 방학기, 윤승호, 김창덕, 박수동 등의 작품을 새로운 독자들이 볼 수 있도록 활발히 복각 출판해

야한다. 고전은 늘 새롭게 해석되어지며 영롱한 빛을 발하기 때문이다. 두번째, 다양한 상업만화가 창궐되어야한다. 일상의 경험을 바탕으로한 작품들, 현실과 동떨어지지 않으며 다양한 재미를 추구한 작품들이 나와야한다는 말이다. 이는 작품의 다양성의 기반이 되며 보다 진지한 만화문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선결조건이다. 세번째, 대안만화잡지를 중심으로한 젊은 작가들의 발굴이다. 상업잡지에만 의지하지 말

고 보다 젊고 실험적인 작가들을 집중적으로 발굴해 낼 수 있는 대안만화잡지나 출판사가 생기고 적극적으로 활동해야한다. 최근에 창간된 '히스테리'는 그 좋은 예이다. 네번째, 기성작가의 분발이 필요하다. 너무 많이 활동을 한 작가들의 활동을 줄이기 위해서는 다른 기성작가들이 더욱 분발해 활발한 작품활동을 해야한다. 새로운 독자들에게는 전설로만 남아있는 이정문, 방학기, 김형배, 고우성, 이회재, 백성민, 오세영 등의 분발이 필요하다. 이들은 충분히 작가적 책임하에 진지한 작품을 창작할 수 있는 '작가'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우리 만화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는 독자들에게 출판사나 작가들의 믿음이다.



▲불교의 내용을 쉽게 설명한 만화 '대불전'

불만한 우리만화

"요즘 불만만 만화가 너무없어" 청소년을 비롯 대학생들이 자주하는 말이다. 친구들끼리 만화라는 주제가 이야기 화제로 떠오른 경우 그 대상은 일본만화가 주를 이룬다. 우리나라 만화는 50~60년 중반까지 아동만화는 많이 출간되었다. 71년 고우영의 '수호지'라는 성인만화가 나오기 부터 80년대는 청소년만화가 눈에 띄기 시작했다. 그러나 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제재를 받으면서 만화는 그 특성을 잃어버려 우리에게 멀어져갔다. 88년 민주화의 물결을 타고 일본만화가 유입되면서 우리만화의 입지는 더욱 좁아졌다. 일본 만화들이 대거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었다. '드래곤 볼', '슬램덩크', '짱구는 못말려' 등 특히 몇몇전에 출간된 '슬램덩크'는 버스안, 지하철단, 길가에서도 학생들의 주된 화제거리였다. 학생들의 이러한 일본만화 집착에 대해 권영섭(한국만화가협회) 회장은 "중고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불교, 유교에 강한 성격을 띠고 있는 반면에 일본은 다신교를 믿고 있다. 그런 이유로 한국은 성에 대해 터부시했지만 일본은 거의 개방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성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우리 청소년들은 호기심으로 인해 자연히 일본만화를 보게 되었다"라고 말한다. 하지만 한국만화에 관심을 갖는다면 우리나라에도 훌륭한 청소년 만화가 많다. 오래된 역사를 통해 한민족의 뿌리를 찾는 김산호씨의 '대주신체구사' 신비속에 가려진 불교 이야기를 그린 '대불전' 중국 4천년 역사를 유머스럽게 그린 고우영씨의 '심판사'를 한시를 풀이한 김학주교수의 '만화로 보는 한시' 주역을 실생활과 관련된 예를 동원하여 정리한 이기동교수의 '만화로 보는 주역' 등 흥미롭고 교육적인 것이 많다. 무조건 일본만화만 찾을 것이 아니라 주의를 관심을 돌려보면 찾아보면 새삼 우리가 읽을 만화가 충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김동혁 기자)



시리즈—경희의 유산을 찾아서

③ 과지(科紙)와 교지(校旨)

오일환, 이연의
(중앙박물관 연구실)

우리나라는 고려 이래 과거제도를 통해 국가의 관리를 선발하였다. 과거 제도는 958년 고려 광종때 부터 시작되어 점차 문과와 무과, 잡과 등으로 세분화 되었다. 관리를 양성하는 기관으로는 고려때 국가감, 태학 등 경시6학과 향학이 있었고 특히 조선시대에는 관학(官學)으로 사학(四學)과 향교 이외에 최고의 학부인 성균관이 있

었다. 그러나 사학(私學)인 서원도 과거를 위한 예비교육 기관으로서 더욱 호응을 받았다. 과거를 거쳐 임용되는 관리에게는 국왕이 교지(校旨)를 하사한다. 교지는 관직, 관직, 자격, 시호, 토지, 노비 등이 기록된 문서이다. 우리 박물관에는 조선시대 초시, 복시를 거쳐 궁궐에서 치러진 3차 시험인 전시의 별시

문과갑과(別試文科甲科)답안지(97.3×146.8cm)가 있다. 이와 함께 1823년에 순조가 홍문관 교리직을 추사 김정희에게 내린 교지(391.9×115.5cm)도 소장하고 있다. 이들 과거 답안지와 교지는 학술적 가치와 역사성이 크다. 현대의 교육기관인 대학에서도 고급 공무원 임용시험인 행정고시, 사법고시, 외무고시 등을 준비하고 있다. 우리 학교에서도 맥진재(행시), 양진재(사시), 존경각(외무고시), 정현재(공민회계사)등 각종 국가 고시를 준비하고 있다. 시험은 인생의 동용문이며 인생은 자기 평가의 연속이다. 우리는 항상 최선을 다하며 성실하게 살아 가야 할 것이다.

문화당신

특 무지컬 '날개만 있다면'

곤충들의 모습을 통해 인간의 모습을 그린 '날개만 있다면'은 김민기의 '지하철 1호선'에 뒤이는 작품이다. 산업화와 문명화로 상징되는 쓰레기의 투척으로 인해 황폐해져 가는 사회를 그린 '날개만 있다면'은 우리사회의 전반적인 문제를 파헤치는 무지컬이 될 것이다. 오는 30일부터 4월 9일까지 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공연한다. 전화 763-8263

'노래를 찾는 사람들 공연'

'노래를 찾는 사람들'의 수원공연이 오는 22, 23일 양일에 걸쳐 경기도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린다. 이번 콘서트는 '광야에서'를 비롯하여 다양한 곡이 불려진다. 전화 0331-32-5642

▲과거제도 답안지인 과지(사 진 위)와 과거급제시 국왕이 하사하는 교지(사진 아래)

CPU 내장으로 머리좋은 프린터

PCcombi

프린터가 컴퓨터 이상의 머리를 쓰기 시작했다. 여러 추적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에러를 스스로 진단하고 여러 수정버튼이 있어 손가락 하나로 에러를 수정하며, 자동 프린트 모드 변환, 자동 인터페이스 인식기능을 갖춘 PC콤비 해상도에서, 속도에서, 가격에서, 유지비에서, 편의성에서 — 이제, PC콤비 이상의 선택기준은 없다.

- 용자가 프린터 내부에서 한바퀴 도는 일반 프린터와 달리 '직선출력방식'이라 양기가나 걸리지 않는다. 최단 급지 거리 실현 / 용지정렬(Paper Jam)의 최소화 / 용지정렬(Paper Cut)의 최소화 / 특수용지 및 두꺼운 용지 자동급지 / 뽕뽕진 용지의 자동 정렬 급지
- ROSE신기술 구현으로 실제 출력 속도가 8PPM 프린터급 이상이 되었으며 진정한 의미의 600DPI해상도를 갖추었다.
- 시는것보다 유지비가 더드는 일반 프린터와 달리 PC콤비는 유지비를 획기적으로 줄였다. 정량 13원(2원대 기준)의 저렴한 유지비 실현 / 토너드림 분리 교체형 / 한 토너당 최고 4400매까지 출력 가능(50% 절약 모드)
- 인공 지능 운영 방식으로 사용이 3배는 편해졌다. 여러 추적 LED 탑재 / 여러 수정 버튼 탑재 / 토너 교체 시기 사전 안내 / 용지에 따른 온도 자동 조절
- 메모리 향상 기술과 획기적인 인쇄품질 향상 기술을 갖췄다. 메모리 향상 기술로 박리한 600DPI 실현 / 출력물에 충이 생기는 것을 막아주는 Smoothing gradation / 더욱 미세한 Micro-Fine 토너 사용

21세기를 이끄는

S 상용정보통신

■서울 : 프린터프리카704-0333, 광주시711-1050, 정주시715-9591, 인제783-6291, 수원정보통신267-7816, 우림정보통신705-1998, 동진에이1775-7404, 금호702-7057, 에버컴퓨터322-5301, 대원정보통신665-7475, 한솔전자368-9852, 선우정보719-7853, 인제·에버컴퓨터426-0222, 컴퓨터프리카771-3003, 인천정보통신761-7862, ■세종특별자치시: 664-9081, ■대전: 664-2217, ■경기도: 부천 경원정보프리카 654-0057, 수원 한컴프리카 38-6950, 평택 경원정보62-8242, ■충북: 청주 914-2714-7780, 세원 컴퓨터A 43-8869, ■충남: 신도전자OA 65-4485, ■전남: 신영씨앤씨 555-8311, ■대전: 신우정보시스템 484-8846, ■충남: 한우 컴퓨터프리카 731-6151, 동해 한컴프리카 535-1125, 삼척 하이테크프리카 72-8942, ■충청남도: 241-8200, ■전북: 전주 한컴프리카 251-4504, ■전주컴퓨터랜드 71-5010, ■익산: 세원정보 52-7742, ■익산: 한컴프리카 842-9074, ■익산: 동원시스템 865-1181, ■간지: 세원컴퓨터 45-4989, 군산: 가성씨앤씨 63-3582, ■전남: 아진씨앤씨 685-2878, ■여수: 신영씨앤씨 42-2842, ■여수: 한컴프리카 652-8321, ■전남: 나비컴퓨터 745-1369, ■부산: 유나시스템 615-9565, ■대전: 나비컴퓨터 653-5888, ■대전: 인포테크 623-4663, ■경남: 김해 컴퓨터프리카 37-1241, ■전주: 태원컴퓨터 745-4063, ■울산: 인진컴퓨터 685-4355, ■울산: 노스씨앤씨 75-0077, ■성남: 세원컴퓨터 622-5123, ■제주도: 세원컴퓨터 657-9788

이름은 IQ부터 다르다!

straight paper supply technology

PC Combi personal laser printer

40원대 최저 가격